

염색산업, 이미지 변신 실패했나?

염색조합, 용어 변경작업 부작용 ...근원불명 용어에 표기조차 틀려

염색산업은 일반인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용어를 바꾸는 작업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려고 했지만 고심 끝에 만들어낸 새 용어가 근원이 불분명하고 표기법에도 맞지 않아 헛수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에 따르면, 섬산련은 섬유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어휘를 선정해 개정하는 섬유패션 용어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면방, 화섬, 염색, 봉제 등 시장 관계자 등이 모여 논의한 끝에 개정이 필요한 용어로 염색과 봉제가 선정됐다.

봉제는 별다른 문제 없이 패션제조라는 용어로 변경기로 했다.

그러나 섬산련 회원단체인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주도 아래 염색을 대체할 용어로 선정된 패션칼라(Fashion Color)라는 용어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염색이라는 단어와 관련해 그동안 업계에서 사용한 패션칼라와 다이텍(Dyetec : Dye Technology) 등과 공모를 통한 DP(Dye Processing), 물들임, 색맞추기 등을 개선용어 후보군으로 올려 논의한 끝에 패션칼라를 대체 용어로 확정했다.

그러나 염색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Dyeing이며 Fashion Color라는 말은 영어권에서 패션의 색깔이라는 뜻이라면 몰라도 염색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더구나 칼라는 옷깃을 의미하는 Collar의 한글 표기이며 색깔을 의미하는 Color는 컬러라고 표기해야 한다.

패션칼라를 말 그대로 옮기면 패션옷깃이 돼 염색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의미가 된다.

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표기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2월 이사회를 열어 연합회 명칭을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꾸기로 결정했으며, 각 지방 및 사업조합의 명칭에도 염색 대신 패션칼라를 사용하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표기가 잘못 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패션칼라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사용했고, 일부 지역 협동조합에서 몇 년 전 패션칼라를 넣어 명칭을 바꾼 적이 있어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28>